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진정한 보물은 내 마음 속에 있다”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 소견

1921년에 찍힌 동화사 대웅전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동국진체(東國眞體)로 쓰여진 대웅전 정면 현판은 그대로였지만, 주련은 지금의 주련이 아니었다. 지금의 주련은 ‘天下無如佛(전상전하무어불), 十方世界亦無比(시방세계역무비), 世間所有我盡見(세간소유아진견), 一切無有如佛者(일체무유어불자)’라는 장엄염불의 한 편이다.



동화사 대웅전

그러나 예전 주련은 흰 바탕에 대자로 쓰여진, ‘마하대법왕(摩訶大法王) 거룩하고 위대하신 법왕이여!, 무단역무장(無短亦無長) 짧지도 또한 길지도 않으며, 본래비조백(本來非?白) 본래 검지도 희지도 않지만, 수처현정황(隨處現靑黃) 인연 따라 붉고 푸르게 나타나네’이다.

역사 깊은 지역 전통 사찰

40억원 금괴 사건 ‘화제’

민족의 보물 손상 우려

이 주련의 내용은 금강경오해(金剛經五家解)이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을 중국 당대의 다섯 분의 큰스님들이 주해한 논장이다. 읽을수록 깨달음의 본바탕인 이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깊어지는 구절들이다.

현재의 대웅전은 1732년(영조 8년)에 중창불사한 것이다. 초창(初創)연대는 알 수 없고, 대웅전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좌정(坐定)하고 계시다. 동화사라는 꽃이름을 가진 사찰답게 대웅전의 문들은 전부 정교하게 조각된 꽃살문들이다.

동화사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이다. 신라 소지왕 15년(493년)에 극달(極達) 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瑜伽寺)라 하였고 그 뒤 832년(흥덕왕 7년) 심지(心地)왕사가 중창하였는데, 그 때가 겨울 철일에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해서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진표(眞表) 왕사로부터 영심(永深)스님에게 전하였던 불간자(佛簡子)를 심지가 다시 받은 뒤, 이 팔공산에 와서 불간자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이룩하니 곧 동화사 참당(鑿堂) 북쪽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라 제41대 흥덕왕의 셋째아들로 태어난 심지는 중악(中岳 : 팔공산)에서 수도하던 중, 속리산 길상사(吉祥寺)에서 영심이 그의 스승 진표로부터 계법(戒法)을 전해받고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러나 때가 늦어 당(堂)에 올라가서 참례할 수 없었으므로 땅에 엎드려서 참례하였다. 법회 7일 만에 진눈깨비가 심하게 내렸는데 심지의 둘레 10자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신기하게 여겨 당으로 안내하였다 한다.

그런 그릴고, 얼마 전부터 이상한 친구 하나가 북한에서 내려와 동화사 대웅전을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들어 놓았다. 대웅전 뒤편에 묻혀있을 수도 있는 40억원에 상당하는 금괴를 찾기 위해 언론을 들쭉서 놓고,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금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대구 동화사 뒤뜰 굴착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김모 씨가 금괴의 굴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진정한 보물은 사실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을 한 번 보아 세세생생(世世生生) 목은 빛을 갖고 나면 무진장(無盡藏)한 보배를 마음대로 쓰고 온갖 중생에게 나누어 주어도 화수분처럼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다.

금괴를 찾으려 탐복했다는 김씨가 금괴만 찾아 해낼 것이 아니라 절에 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마음밭을 갈아 진정한 보물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격정스런 것은 행여 민족의 보물인 대웅전이 금괴 찾기 공사로 인해서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자연 벗 삼아 한 폭 한 폭 父情 펼쳐내

김종학 화백 다정전...부산 조현 화랑

1987년 한 작가는 자신이 평소 모아오던 동자승 업경대 등 불교유물과 목기 등의 전통 공예품 3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보시행을 실천한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작가의 상설 전시관이 생겨나 전통 미학을 대중들에게 선사한다. ‘설악산의 화가’ 김종학 화백의 이야기다.



김종학 화백의 다정전이 8월 26일까지 부산 조현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비롯해 연꽃 등 자연 소재의 작품, 작가의 소장 골동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왼쪽은 ‘꽃과 개구리’ 오른쪽은 ‘도라지꽃’



김종학 화백의 다정전이 8월 26일까지 부산 조현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비롯해 연꽃 등 자연 소재의 작품, 작가의 소장 골동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왼쪽은 ‘꽃과 개구리’ 오른쪽은 ‘도라지꽃’

김 화백의 작품이 부산을 찾았다. 8월 26일까지 부산 조현 화랑에서 열리는 김종학의 ‘다정’전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비롯해 자연 소재의 작품, 작가의 소장 골동품 등을 만날 수 있다.

김 화백은 예술세계의 에너지원이 곧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혼 후 25년 동안 자식들과 헤어져 있는 동안 작가가 손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자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아버지로서 갖는 염려와 걱정, 칭찬과 조언 등이 따뜻하게 담겨있다. 김종학 작가 자신이 그림 작업을 제외하고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아들과 딸에게 편지 쓰는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에게 있어 편지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였던 것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등의 글 답아

자녀들에게 격려 편지 전해

연꽃 주제 작품도 선보여

고려말 때 큰 스님 나옹의 시다. 내 마음에 꼭 들어와 외우고 있단다.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련다. 사랑하는 현주 귀엽고 어여쁜 현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을 진심으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버리고 다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이번이 공개되는 편지에서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물론 작가 본인의 내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짐작할 수 없는 무명작가의 괴로움에서부터 유명 작가가 되었을 때의 그 갑갑함까지 작가의 인생을 속속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편지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김종학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소재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작품 세계가 한층 더 추상화 단순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연꽃을 소재로 한 ‘꽃과 개구리’를 비롯 ‘도라지꽃’ ‘바다, 돌산’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 소장의 골동품을 감상하는 즐거움

도 만끽할 수 있다. 설악산에 거주하는 작가가 서울에 와서 가장 즐겨하는 일이 골동품 가게를 방문하는 것이다. 그동안 작가가 모은 반다이 사방탁자 등이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다.

한편, 김종학 화백은 평북 신의주 출신으로 경이고, 서울대 미대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79년 추상회화 열풍 속에서 빠져나와 설악산에 첩거하며 30년 동안 묵묵히 구상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꽃과 풀, 산과 달, 바람과 물 등 자연을 통해 원초적 생명력을 표현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라 유물 찾아 상상 여행 떠나자

공주박물관 ‘타임캡슐...’ 특별 전시

8월 26일까지 희망과 염원 담아

왜 작은 쇠술에 부처님의 물건을 넣었을까? 유물에 어린아이와 동물을 넣었던 이유는 뭘까? 신라 말기 사람들이 유물과 쇠술에 담아두었던 유물들이 1,200년 만에 공개된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8월 26일까지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 특별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신라의 유물과 말쑤리 절터 유적지의 쇠술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삶과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부는 신라 유물에 담긴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국립경주박물관 부지 2개의 유물에서 발견된 어린아이뼈와 약 30여 종 2,300여 점의 동물뼈, 530여 점의 토기와 금속제품, 목제품 등이 전시된다. 신라 왕궁으로 추정되는 경주 월성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은 일반 유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관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확인된 유물들은 기우제 등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창녕 말쑤리 절터에서 발견된 ‘손잡이 향로’

2부는 신라 당시 절터로 추정되는 창녕 말쑤리 유적의 작은 쇠술에 관한 이야기다. 쇠술에는 풍탁, 향로, 부처님이 새겨진 화려한 금동장식판 그리고 갖가지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발견 당시 이 쇠술은 금동으로 된 불교 공예품 500 점을 보잘 것 없는 쇠 조각들로 가려 놓았다. 당시 보물을 감추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부처님의 참된 세상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두지는 않았을까?

기나긴 세월동안 땅 속에 감추어졌던 1,200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질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자.

정혜숙 기자

조계종, 부처님길걷기 캠페인

충남 윤정사에 불서 1천권 기증

‘부처님길사랑, 윤정사 사찰도서관 불서 기증식’이 7월 19일 충남아산 윤정사에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스님)가 주관하고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1천여 권의 불서와 ‘부처님길사랑’ 현판 및 기증서가 윤정사에 전달됐다. 윤정사는 효전문 교육도량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은 불서(佛書) 문화 확산과 불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진행돼 온 행사다.

조계종은 책을 통한 마음치유와 포교를 목표로 2009년부터 지금껏 군부대와 지역 사찰에 12,000여권의 불서를 보급해 왔다.

또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해외 저개발 불교국가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제10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 (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입재 : 양력 7월 29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 일 사 : 2012년 7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6월 11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7월 29일 (음, 6월 11일)
- 3 재 : 양력 8월 12일 (음, 6월 25일)
- 5 재 : 양력 8월 26일 (음, 7월 9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9월 9일 (음, 7월 23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 위패비, 아기웃 (무료)
- 준 비 물 : 사랑, 과자, 분유(우유) 등
-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시를 사는데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입장 02)3391-8523 / 011-9002-8523